

† 마데테스는 제자라는 헬라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뻐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자신을 잃다고 여기는
죄인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잃은
사람됨을 지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서는 인생에
실수는 있을지언정
실패하는 인생은 없음을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워하는 세계

신 윤 식

이쪽 귀퉁이에서
돌을 던지니
물결이 출렁이며
저쪽 귀퉁이까지 전달되듯

네가 기뻐하는 것으로
나도 기뻐하게 되고
네가 감사하는 것으로
나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
네 마음 내 마음
따로 가 아닌 세상이겠지

호수의 물처럼
하나의 마음은
전체의 마음으로
출렁이는 물결 되어 전해지고

산을 휘감아 도는 메아리처럼
하나의 소리가
우리 모두의 영혼에 울림이 되는
그 세계를 나는
너무너무 그리워하노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1.30

발행호수 제19권 5호

인 간은 인간 나름 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생각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의해서만 천국 백성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생명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 나라”** 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100% 천국 갈 사람이다’ 라고 칭송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으면 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기준에는 ‘선’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 즉 착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기준은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갖고 있는 일반적 기준이며 구원에 대한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는 주장에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착하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절을 다닌다고 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윤리와 도덕이 토대로 된 사고방식에 부합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만 천국 간다’ 라는 말에 대해 ‘기독교의 독선’ 이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믿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 모습은 선한 행실인데 선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선’ 이 구원과 복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교회에도 자리하고 있

주일오전설교
마 19:16-22

부자의 근심

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신자다운인 것처럼 오해되어 있으며, 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자의 성화 또한 도덕과 윤리적 시각에서의 행위 변화와 맞물려 강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선’ 이 천국에 해당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6절)라는 질문을 합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 관심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청년이면서 부자였다면 재물로 인생을 즐기는 일에 더 관심을 두었을 법도 한데 영생, 즉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에는 영생에 대한 오해와 함께 인간적 사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선한 일을 실천함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천국은 인간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원칙과 전혀 반대된 인간의 기준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는 질문은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년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는 말씀에 대해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라고 응답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여섯 가지의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20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기에 그러한 자신을 영생을 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 실천을 경건한 신앙으로 여겼던 유대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계명을 잘 지킨 청년은 부족함이 없는 경건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한국교회의 시각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적 시각에서 주일 성수와 십일조 등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가 원하는 신앙이 바로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는 계명에 대해서도 지켰다고 한 것을 보면 이웃을 도우며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계명을 지키는 신앙생활에 철저했고 이웃을 돕는 선한 일에도 부지런했다면 교회가 원하는 완벽한 신앙인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부자는 곧 ‘복 받은 사람’으로 여김 받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부자는 복 받은 사람이며 가난한 사람은 저주 또는 징벌을 받은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자 청년은 유대 사회에서는 복 받은 사람이며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킴으로써 신앙적인 면에서도 경건한, 말 그대로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을 둘러싸고 완벽한 조건 안에서 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자신의 부족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청년의 부족함을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1절)는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온전함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예수님에게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포기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재산을 장학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기부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는 식으로 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자기 재산이 아무 보람도 의미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이라고 해도 청년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

입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간 반면,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근심은커녕 담담할 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까? 이 점은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이 예수님에게서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2절)는 말씀만 생각한다면 재물에 대한 욕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이 욕심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선은 진정한 선이 아니며, 따라서 인간의 선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는 말씀에서 선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계십니다. 따라서 청년은 재물로 인해 근심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과, 인간과, 영생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생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기존의 자신이 살아가던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년이 살아가던 세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재물이 많은 것이 곧 복이 되는 세계고,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으로 알고 있던 세계입니다. 청년은 자신이 살아가던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청년은 기존의 자기 세계에다가 영생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재물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옴으로써 신앙에 있어서도 나무랄 데 없는 자기 세계에 확고한 영생을 추가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생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다를까요? 현대 교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세계를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청년처럼 돈과 경건한 신앙과 천국으로 채워진 완벽한 자기 세계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씀은 자기 세계를 포기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많은 재물을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참된 보화로 여겨지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감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에 대한 청년의 생각은 모두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긴 것이 잘못된 것이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자신을 선한 존재로 여긴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인간은 무엇으로도 온전해 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생이란 자기 세계를 벗어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임을 몰랐던 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가게 한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지 교회 다님으로써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청년처럼 기존의 자기 세계에 천국을 하나 추가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에 해당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옵니다. 그러면 재물이 적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재물이 많은 적든 사람에게 재물은 자신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힘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기존의 세계이며 이 세계에서 스스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무엇을 하여야'라는 말은 자기 현실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의 질문일 뿐입니다. 영생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신자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재물로 인해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신 자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육신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육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인한 모든 유희와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뜻하기 때문에 신자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신자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면 죄의 유희를 이기면서 죄로부터 벗어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한 자로 산다면 그것은 곧 성령이 죄의 세력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에게 관심을 둔 사람의 성령의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면 자신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게 되고 죄를 이김으로써 거룩한 삶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된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생각일 뿐입니다.

신자가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육신에 관심을 두고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을 예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죄의 세력에게 지배를 받는 죄의 모습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절감하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무지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나 행함을 의미하지

주일오우설교
고전 12:1-3

**성령을
받으면**

(성령 3강 1.16일 설교)

않습니다. 신자의 신령함은 성령이 함께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얹으로써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생명임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가 나의 주다’ 라는 말을 하면 그는 성령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누가 못합니까?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얼마든지 예수로 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 성령 받은 것이 됩니까?

하지만 사도의 말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주라고 고백한다면 다 성령 받은 것이다’ 는 뜻이 아닙니다. 또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도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보다 자신이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성이 예수를 저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베드로의 인간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도 나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수를 저주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의 생존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의 생존에 유리한 길만을 가면서 언제 어느 때든 예수를 저주할 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장담 한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

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신자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크신 분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바라본다면 상대적으로 내 자신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크고 예수님도 크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크고 존귀한 분으로 보게 되고 나는 작고 연약하며 무가치한 존재로 보게 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참된 주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크고 존귀한 분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주어지는 모든 것 또한 크고 존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용서, 은혜 모든 것이 크고 존귀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로 인해 함께 하게 된 지체 또한 크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에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보게 되면 자신이 큰 자로 높임 받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누구의 것이 더 나은가’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뒤에 보면 은사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누구의 은사가 더 나은지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다툼이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무지였습니다.

신령한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보지 않고 은사를 주신 예수님을 크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바라보고 존귀하신 주님으로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에게서 주어진 모든 것을 존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병을 구치는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상관없이 은사를 주신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모든 은사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한 신령한 신자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나 자신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크신 분이로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큰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요 16:8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고 그 세계는 나의 죄인 됨을 절감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계에서는 자신의 봉사와 헌신에 눈을 돌리지 않기에 인간의 봉사와 헌신이 기준이 된 경쟁과 다툼도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 놓으면서

‘누가 크냐’ 라고 차별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신자가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주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타인을 대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주가 크신 분이고 나는 작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큰 자로 행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하기도 하고, 잘했다 잘못했다는 판단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진정성은 여러분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성령 받은 신자가 과연 함께 존귀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지체를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 지자는 예루살렘 성을 패역하고 포악하며 더러운 것으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할 이유를 여호와와 형벌

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으로 말합니다(15절). 이 내용만 보자면 유다는 분명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즉 구원을 선포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심판과 구원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 사이에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즉 심판에서 구원으로 돌아감 받을만한 조건이나 계기가 인간 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외침은 아무런 조건과 계기가 없이 심판에서 갑작스럽게 구원으로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유다는 그들의 포악과 패역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여 바벨론부터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의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나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구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이 가진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인간은 심판이 마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이 같은 인간의 본질은 불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심판이 마땅한 불의한 존재였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취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마땅한 유다 백성 안에서 입술이 깨끗하여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입니다.

이들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

수요일설교

습 3:9-20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5장 119일 설교)

으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 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13절). 다시 말해서 오늘 날 하나님이 택한 신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신자는 교회생활에 충실한 것으로 그 믿음과 신자 됨을 인정받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자는 9절의 말씀대로 깨끗한 입술로 여호와와 이름을 부릅니다. 깨끗한 입술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패역하고 포악하며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불의와 더러운 수치를 알지 못한 자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공훈과 자비를 구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러운 입술에 해당됩니다.

죄 있는 자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마치 죄 없는 자처럼 육신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끗한 입술은 자신의 불의와 더러움을 보면서 자기 수치 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공훈을 구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범죄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자기 수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훈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 받은 신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더러움과 수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훈과 자비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신자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오직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을 참된 신자로 인정합니다. 아무리 자기 수치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교회의 실

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패역과, 포악과, 불의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현실은 여전히 죄의 세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치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겠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점점 구원 받을 만한 사람으로 무장되어 갈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 있으면 인간의 실상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것도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 군대로 인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었다’며 절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자리가 지나갈 때 그들 앞에 열리는 홍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실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없었다면, 그래서 죽음을 실감하지 못했다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단지 신기한 기적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한 것으로 바라본다면 아직 죽음에 처한 자신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죽음이라는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신 십자가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내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만 여긴다면 신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신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공훈과 자비하심의 존귀함을 깨닫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귀한 피가 부어져서 깨끗하다고 일컬음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9장
교 독 : 67(잠3)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391장
성 경 : 마 19:16-22
말 씀 : 부자의 근심(123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90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2 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491장
기 도 : 송수경 집사
찬 송 : 369장
성 경 : 롬 8:1-2
말 씀 : 성령과 해방(성령 5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191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학개 강해(2강)

☐ 교회소식 ☐

- 2월 13일 주일에 실시할 권사투표의 후보는 김옥분, 김옥자, 김윤정, 조길옥, 조순자, 최두임, 한옥섬, 황경영 집사님입니다.
- 박신자 사모님께서 어깨 골절로 삼천포 서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 수련회 회비를 매월 적립하실 분은 장영대 집사님께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이성희 장로 오후 오현주 집사

좀 더 솔직해지자②

백합화는 그냥 꽃이다.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돈만 있으면 수천 수만 송이라도 살 수가 있고, 집에 정원을 만들어서 백합화로 도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것은 꽃이 아니라 돈이다. 이처럼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인식 안에서 솔로몬의 영광도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이해할 수도 설득될 수도 없는 논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눈에 백합화는 그냥 꽃이다. 백합화가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백합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혹 백합화가 희귀한 식물이라면 남에게 없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그만큼 가치와 등급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들의 백합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흔한 들꽃과 같은 것이었고 따라서 물질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일 뿐이다.

이러한 백합화의 영광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낫다고 하신 것은 우리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부귀영화에 의해 평가되는 영광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으로 가치가 있다고 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라는 것으로 가치와 등급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에 팔리느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 마치 마약 중독자들에게는 마약이 희열이며 그것으로 생을 지탱하면서 마약의 세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 중독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생을 지탱하면서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 것이 인간이며 그것이 우리의 한계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 채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말한다면 그것은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끄는 것일 뿐이며 자기 생존을 앞세운 것일 뿐이다. 심중으로는 허상을 쫓고 세상으로 요동을 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을 일삼는 것은 타인을 속이는 죄악일 뿐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세상과 타인을 자기들의 잣대로 구분하고 분류하면서 가치와 등급을 매겼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였고, 그들이 가장 가치 없고 등급이 낮은 인간으로 치부하고 분류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오히려 천국에 가깝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솔직한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본질로 회귀하여 예수를 만났기에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자기에게 솔직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본질로 회귀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솔직하지 못하면 결국 회칠한 무덤이 되어 썩은 냄새만 풍길 뿐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중독되어 사는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가신 길로 자신의 모든 생을 던져 넣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아닌 척 자신을 가리고 묵시랍시고 가치 있고 등급이 높은 자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속일 뿐이다. 자신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자.